

지역 소식통

고창군수, 새해 첫 결재
고창군 농업인회관 준공식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고창군 농업인회관 준공식 개최를 신년 제1호 공식 문서로 결재했다. 농업인회관은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31억3400만원이 투입된 지난 해 5월 착공되어 12월에 준공되었다. 지상3층 건물로 1층은 식품가공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창업가공 기술교육 공간이며 2층은 농업인단체 사무실과 세미나실,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3층은 184석을 갖춘 극장식 강당으로 각종 행사와 워크숍, 중대형 규모의 교육이 가능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령화를 비롯한 농업인력 부족과 농촌소멸의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농업재해 대비에 민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농업인회관이 농업기술의 정보교류와 소통 공간의 장소로 활용되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힘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부안군 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안군 농업인대학은 청년농부반, 군민정원사반, 농식품가공반 등 3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학과별 25명~40명씩 모두 9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이론교육, 현장학습, 실습 등 중장기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시간은 과별 100시간(25회 이상)이다. 청년농부반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스마트팜, 드론 농기계교육, 부모와 갈등 문제 해결, 후계농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 다양한 구성으로 체계적인 학습이 진행된다. 군민정원사 과정은 기본과정으로 정원학개론 정원설계 등 실내식물 유지관리, 식물의 번식과 생장, 정원디자인 등 정원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배우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생활인구 24만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가장 일하기에 좋은 도시 만들 것"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전북 고창군의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5배 육박한다는 정부의 산정 결과가 나왔다. 3일 고창군은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발표결과 고창군의 생활인구(2023년 4~6월 기준)는 24만2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 고창군의 주민등록인구는 5만1994명이었다. 생활인구가 실제인구의 5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생활인구는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을 합친 현지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른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6월 고창군 외국인인구는 1421명으로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14명(36.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진=고창군 제공>

고창군의 체류인구는 18만8832명으로 외국인 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6월 고창군 외국인인구는 1421명으로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14명(36.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행안부는 "외국인 생활인구가 많은 경우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정착유도 사업이나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고창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60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일손을 도왔고, 올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6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허가를 법무부로부터 받아냈다. 3월에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준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좀 더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이 만들어가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 소멸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란 걸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산정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생활 인구를 늘리는 정책 발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대학교 신입생·취업준비생 각 100만원 지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정읍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취업준비생과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100만원(장학금·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등록금과 초기 정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취업과 구직에 필요한 구직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고등학교 졸업생과 2023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해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둔 학생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 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우수한 지역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지원사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장학숙, 2024 신규입사생 모집... 내달 1일까지

정읍시민재단이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정읍장학숙의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재입사생 48명을 제외한 50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28명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내달 1일까지로, 정읍시 제2청사 2층 인재양성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imai032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선발 공고일 기준 지원자 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또는 대

학원의 재학생이다. 신입생과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입사생은 입사비 7만원(연 1회), 식사가 포함된 월 15~20만원의 사용료를 내며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생활할 수 있다. 시는 학업성적, 생활정도, 가산점 등을 종합 합산해 내달 7일 선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민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정읍장학숙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이사장은 "정읍장학숙이 학부모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학

생들의 자아실현을 돕는 인재육성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16년 9월 개관한 정읍장학숙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36개의 기숙사와 식당, 독서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세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정읍시, 청년참여포인트제 운영

시정·관광명소 개인 SNS 게시, 시 주관 행사 참여 시 포인트 지급

정읍시는 청년들에게 정책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시정 참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참여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참여포인트 제도'는 지역 내 청년들이 시정이나 관광명소를 개인 SNS에 게시하거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시 포인트를 지급해 누적액에 따라 정읍시관광상품권으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5월 시민참여 정책제안 특별주제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 제도는 지역 내 청년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도록 유인하고, 스스로 정읍시의 시정과 관광지를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하도록 유도해 다양한 시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평가 받았다. 구체적인 포인트 부여 대상은 △신규 가입 시 5000포인트 △개인 SNS에 시정 관련 홍보 게시물 링크 및 스캔본 게시 500포인트(1주 3회 제

한) △시 주관 교육, 간담회 참여시 5000포인트 △시 주관 축제, 워크숍 참여 시 5000포인트 △지역 내 관광명소 방문 후 SNS 게시 3000포인트(1일 2곳 이내 제한) 등이다. 월별 최소 5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정읍시관광상품권 전환이 가능하고, 미달 시 내달으로 이월돼 합산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매월 5만 포인트, 연간 최대 40만 포인트까지만 누적된다. 신청은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갖춰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이메일(stjtdn1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 제도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청년들이 시정과 관광명소에 관심을 가져 정읍의 다채로운 모습을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최영두 부안군 부군수 취임... 본격 업무 돌입

최영두 선임 부안군 부군수가 지난 2일 직원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최영두 부군수는 1990년 고창군에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딛던 후 전라북도 총무과 공무원단체팀장, 사회복지과 행복정책기획팀장, 사회복지경제과장, 보건의료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부안군 부군



수로 부임했다. 풍부한 현장경험과 탄탄한 업무추진력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등 두터운 신임을 받은 최영두 부군수가 우수한 리더십을 발휘해 부안군 구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영두 부군수는 취임 인사를 통해 "부안의 민선8기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핵심공약의 세부실천과제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 취임식 개최

민선 8기 전북 고창군이 김철태 전 전북도청 예산과장을 부군수로 맞으며 신선한 변화를 예고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원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대 김철태 부군수 취임식'이 열렸다. 새롭게 취임한 김철태 부군수는 "고창 부군수로 부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선 8기 고창군의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정책기획 전문가로 일



했던 경험을 살려 고창군 5대 전략사업(신활력산업단지 준공 및 삼성전자 입주,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사업, 고창(호남권) 드론융합지원센터, 고창종합테마파크, 농촌협약·농촌관광 스타마을) 본격화에 헌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973년생인 신임 김 부군수는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을 전공해 1999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직전에는 전북도청 예산과장으로 재임하며 민선 8기 전북도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시·군의 도비 매칭사업 예산배분 등에 큰 역할을 맡아왔다. 또 생활체육대추전 추진단장, 기획조정실 성과평가팀장, 성과기획팀장, 문화콘텐츠팀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정책기획·정보통신 전문가로 활약해 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